일요법회 창립 익산 백운사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이 익산 백운사 일요법회에서 강의하고 있다.

익산 백운사(주지 우성)는 9월 27일 일요법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신도들의 기초교리 교육을 위주로 진행되는 일요법회는 월1회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의 강의로 기초교리와 일상생활속의 불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종교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며 "열심히 배우고 익혀 사회 곳곳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30여 명의 불자가 동참한 첫날 법회는 김진수 단장의 간단한 불교예절과 한가위를 앞두고 차례상 차리기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미당시문학관 함께 새로운 도약

백파사상연구소 발기인 모임 개최… 승려노후수행관 추진 본격화

고창 선운사가 미당시문학관과의 연계를 통한 불교문화관광벨트를 구체화하고 나섰다. 또, 백파사상연구소와 석상마을 승려노후수행관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 나서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중이다.

미당시문학관(이사장 법만·선운사 주지)은 9월 28~29일 미당문학관 인근 질마재 마을 주민들과 전국의 문학관 탐방을 다녀왔다.

행사에는 고창군 선운리 질마재 마을 인근 4개 마을 이장, 청년회장 등 마을주민 70여 명이 참석해 최명희문학관 등 전북지역 4곳의 문학관을 탐방했다. 이어 두 번째 탐방길에서는 원주 박경리문학관, 백담사 만해마을, 양평 소나기마을과 미당의 유품이 보관돼있는 동국대 도서관 미당자료실 등을 둘러봤다.

9월28일 선운사에서 열린 백파사상연구소 발기인모임에서 참가자들이 연구소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선운사가 추진 중인 불교문화관광벨트의 정책방향에 지역민들의 희망을 담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도 가졌다.

법만 스님은 "미당 시문학관을 연간 100만 명이 넘게 찾는 선운사와 하나의 문화 벨트로 묶어야 고창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내년 선운문화제는 '선운사의 역사와 문학'을 주제로 꾸며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7일에는 선운사에서 한국 근대 불교를 이끈 백파문도의 그간 업적을 재조명하고 계승하기 위한 백파사상연구소 발기인 모임이 개최된 데 이어 석상마을 승려노후수행관 추진위원회도 열었다.

백파사상연구소는 향후 △백파스님 관련 전적 수집 및 번역 △백파·석전 스님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백파 문도의 법맥도 체계화 △조사전 건립 및 선대 조사 진영 제작 △백파문도의 행장 수집과 정리 및 위상 정립(영호대종사 독립유공자 신청 등) △불교 학술세미나(종책연구) △서적 편찬 및 각종 행사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석상마을 승려노후수행관 추진위원회에서는 부지매입과 주민 이주 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주민이주가 민원을 야기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원만히 이루어진 점 등 그간 과정에 대한 격려가 있었다. 또, 노후수행관을 자연친화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공모 등을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국토를 찾아서

군산불교신도연합회

악조건 속에서 빛 발하는 '불교활동'

인구밀도당 교회 숫자가 가장 많아 기네스북에 올라있다는 군산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불교 신행단체나 불교활동가들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사업상 혹은 대인관계상 불교활동 사실을 밝히기조차 꺼리는 불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산지역 불교활동가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으면서도 그 성과가 미미하거나 노력들이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다반사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군산불교신도연합회 안근 회장

이런 악조건 속에 군산 불자들의 모임인 군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안근, 군산신도회)는 열악한 군산지역의 불자들의 구심점으로 군산사암연합회와 더불어 군산불교를 이끌어 가는 대표적인 신행단체이다.

군산신도회의 뿌리는 군산불교청년회 활동으로부터 시작됐다. 1990년대 초 군산불교청년회는 법회장소와 신행공간을 마련하고자 군산불교회관추진위를 구성했다. 군산불교청년회의 원력은 1997년 군산불교회관이 개관하는 성과를 거두며 군산지역 불자들을 아우르는 신도회로 거듭났다.

군산불교회관의 개관과 함께 청년회 등 지역 신행단체들의 법회장소는 물론 다양한 문화활동을 위한 장소가 마련됐다. 이후 군산신도회는 명실상부한 군산불교회관의 운영주체로서 활동 중이다.

해마다 부처님오신날 즈음해 개신교가 성행하는 도시에서 연등으로 거리를 장엄할 수 있는 것도 군산신도회의 노력 덕분이다. 밤새워 거리에 등을 다는 신도회원들의 노력은 눈물 겨울 정도이다.

군산신도회는 안근 회장이 취임한이래 군산시의 지원을 받아 연등축제를 문화예술축제로 발전시키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근 회장 취임 이후, 군산시청 앞 뜰에서 군산 개항 이래 처음으로 기원등이 점등되기도 했다.

군산신도회는 신도회원의 결속을 위해 매월 지역의 소식지를 발행해 왔다. 매년 개최하는 일일찻집을 통해서는 어려운 청소년들과 독거노인들에게 장학금과 난방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또, 매년 정초에는 군산발전기원 조찬법회를 열어 지역기관장들과 수백 여 불자들이 함께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져 지역불자들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군산불자들을 대표한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펼쳐지는 중이다. 군산신도회는 선거 때면 지역 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명선거실천협의회를 구성해 공명선거에 앞장서왔다. 군산미군우리땅찾기 모임에는 천주교와 함께 연대해 대시민활동을 펼지고 있다. 환경문제에도 앞장섰다. 군산신도회는 금강철새보호구역이나 금강하구언에서의 환경보호 활동도 펼치고 있다. 여러운 여건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지역의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군산불교신도연합회의 활동모습이 든든하고 아름답기까지 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합동 차례·노인잔치 동여수노인복지관

노인의 날과 한가위를 맞아 지역 노인들을 위한 어울림 마당이 펼쳐졌다.

동여수노인복지관(관장 김가현)은 9월 30일 여수시 큰샘골에 위치한 복지관에서 300여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한가위 차례지내기와 노래잔치를 벌였다.

1, 2부로 나뉘어 진행된 행사에서는 1부에 개회식, 인사말, 차례지내기, 풍물공연, 어린이밸리댄스 공연에 이어 무료급식이 진행됐고, 2부에서는 열음식(우도풍물굿), 건강체조, 오카리나 연주에 이어, 어르신 노래자랑, 에어로빅 공연, 비보이 댄스 공연이 진행돼 참석한 어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김가현 관장은 인사말에서 "불교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인 만큼 전통명절을 다 같이 지내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다"며 "어른들이 같이 노래 부르고,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운주사 천불천탑 모형 등장

광주디자인비엔날레서 눈길 끌어

세계적 문화축제의 장인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운주사 천불천탑을 모형화한 조형물이 들어서 눈길을 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설치된 운주사 천불천탑 모형.

9월 18일 광주에서 막을 올린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전시관 일대에 운주사 탑을 모티브로 하는 입장권판매대, 기념품 판매대, 간이음식점 부스가 등장했다.

이 작품은 디자인비엔날레 공간 연출을 맡은 이탈리아 건축가 시모네 카레나(홍익대 교수)와 마르코 브로노(건국대 교수)가 설계했다.

운주사의 탑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이들 상징물은 총 6점으로 분홍색, 파랑색, 붉은색 등 화려한 색의 천과 재료로 표현했다.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운주사가 갖는 전통문화의 향기와 현대적 디자인의 만남은 '전통의 새로운 디자인화'에 큰 계기가 될 것이다"고 소개했다.

한편, 11월 4일까지 계속되는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48개국에서 519명의 디자이너와 376개 기업이 참여해 1951점의 디자인 작품을 선보인다.

행사에서는 입고, 먹고, 쉬고, 배우고, 즐기는 인간 삶을 디자인 관점에서 재해석, 옷(衣)·맛(食)·집(住)·글(學)·소리(樂) 5개 주제로 나눠 보여 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노인의 날 기념 경로축제 '다채'

고창복지관 7일, 어르신 1000여 명 참석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무공)은 노인의 날을 기념해 10월 7일 복지회관 앞 광장에서 '제2회 경로의 날 – 복운경로축제'를 개최했다.

고창군노인복지관에서 10월 7일 열린 제2회 복운경로축제에서 어르신들이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과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성송농악전수관 풍물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작품발표회,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 5명(변영철, 정화자, 김혜옥, 박석영, 김종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표창장도 수여됐다.

공연에는 노인복지회관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 중 난타, 한국무용, 복운실버합창단, 건강체조, 댄스스포츠, 복운실버악단 등 그동안 복지회관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펼쳐졌다.

축하공연에서는 '신나는 예술버스' 초청공연으로 사물놀이 판 굿, 한량무예, 진도북춤, 초청가수공연 및 청솔체육관의 태권도 시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돼 어르신에게 즐거움과 흥겨움을 선사했다.

무공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외감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우리 고유의 전통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 15th

범종 명가 성종사 국내 최대 1만관 대종 주조 성공

聖鍾社 SUNG JONG SA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sungjo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대한민국 명장)